

프랜차이즈, 사업 다각화 모색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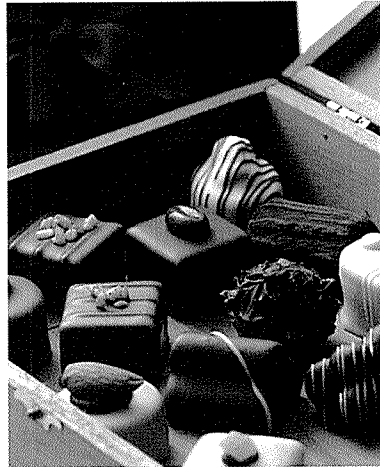
뚜레쥬르, 신라명과 등 앞다퉈 복합 매장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서서히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뚜레쥬르는 카페 사업에 본격 진출함을 공식 발표했다. 12월 5일 신촌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1년 내 서울 시내 도심 상권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15개 매장을 개설하는 등 빠르게 점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신라명과 또한 기존의 '케이크 앤 에스프레소(Cake & Espresso)'를 통한 복합 점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초콜릿 전문 브랜드의 런칭과 미국 유명 커피 회사와 제휴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말 제휴를 통해 정통 유럽빵 브랜드 '도미니크 듀세'를 런칭한 크라운베이커리의 예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뚜레쥬르의 새 카페 브랜드 '투스럼 플레이스'

뚜레쥬르의 새로운 상표 '투스럼 플레이스(A Twosome Place)'는 'A-혼자', 'Two-둘(연인/친구)', 'Some-동료' 등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만남이 즐거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 50~100평 사이의 단·복층 건물 구조에 정통 유럽형 카페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통일감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스럼 플레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40여종에 이르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로,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샐러드, 아이스크림, 커피, 스무디, 생과일 주스 등의 음료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1일 출범하는 '투스럼 플레이스'의 공식 사이트(www.twosome.co.kr)에는 '보석 케이크', '무료 파티

패키지' 등 풍성한 오픈 축하 이벤트도 대기중이다. 뚜레쥬르의 야심작 '투스럼 플레이스'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앞으로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예정이다.

신라명과 초콜릿 등 5개 주축 사업 선정

신라명과는 국내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 '라 밀(La Mill)'과 제휴 계약을 체결, 빵과 함께 고급 커피를 곁들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체 브랜드 '라비두스(La Vie Douce)'를 초콜릿 전문 브랜드로 전격 리뉴얼하고 선물용 고급 초콜릿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 업체는 커피와 초콜릿에 파니니 샌드위치, 생과일 주스, 케이크를 더해 5가지를 주력 사업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라명과는 5개 제품군을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한 매장에서 여러 품목을 접목시키거나 혹은 단일 품목의 전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라명과는 11월 1일 ASEM타워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안테나 슝으로 전환, 5개 품목 모두를 적용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테나슝의 매출 추이를 관찰한 후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신라명과 사업 다각화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냉동 생지'이다. 주로 단체 주문 납품으로 냉동 생지를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은 '저온 숙성빵'이라는 신라명과의 선호적 이미지를 업고 이미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자리를 잡은 상태.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취재·김미선〉